

◇성인 활로씨 사정증의 임상고찰

손상태, 전순호, 신성호, 반동규, 김혁, 김영학, 지행욱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본 한양대학교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1982년 5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경험한 성인 활로씨 사정증 9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방법 : 9명의 성인 남녀 활로씨 사정증을 대상으로 하였다.

결과 : 1] 총 9명중 남자 6명, 여자 3명이었다. 2] 연령은 18세부터 48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8세이었다. 3] 증상은 7례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NYHA III에서 IV였다. 5명이 청색증을 보였고, 6명에서 곤봉지[clubbing finger]를 보였다. 4] 심실중격증은 Perimembranous형이 5례, Subarterial형이 4례이었다. 5] 평균 대동맥결찰시간[ACC]은 91.9분이었다. 수술 방법으로 Transannularpatch를 4례에서 하였다. 6]평균 P[RV/LV]는 0.58이었다. 7]동반된 기형으로는 심방중격결손증 2례와 DCRV 2례이다. 8] 수술후 기도내 삽관제거[extubation]은 평균 POD # 1.1일 이었다. 9]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늑막삼출이 2례 있었고 출혈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재수술 1례 있었다. 또한 Pacemaker wire site에 감염으로 부분절개와 배농술 1례 있었다. 10] 9명의 환자중 1례에서 10세때 B-T shunt후 20세에 완전교정술 시행하였고, 1례에서 활로씨 사정증 교정술 후 심실중격을 통한 단락[residual shunt]과 폐동맥 협착증으로 본원에서 재수술[완전교정술]을 하였다. 11] 수술 후 사망자는 없었다.

결론 : 성인 연령층에서 활로씨 사정증은 선천성 심장질환중 심방중격결손증 및 심실중격결손증 다음으로 3번째를 차지하며 성인 청색증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다. 대체로 영아 소아기에 수술이 권유되고 시행되어지고 있으나 성인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낮은 수술 사망율과 유병율로 치유될 수 있다.

책임저자:김영학(한양대학교 의과대학) 발표자:손상태(한양대학교 의과대학)